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를 읽는 인문학 수업**

지은이 | 이영민, 유성경, 송태현, 송영빈, 장한업 지음
발행일 | 2023. 04. 25
분 야 | 인문 > 인문/교양
판 형 | 130*200
형 태 | 무선, 252쪽
정 가 | 16,800원
매입사 | 길벗 · 출판사 | 더퀘스트
담당자 | 안아람, 02-330-9892
ISBN | 979-11-407-0385-2 03190

“나는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발견의 대상이다”

지리학, 심리학, 문예학, 언어학, 교육학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당신에게
자기발견의 인문학 수업**

인생의 분기점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만난다. 어느샌가 사회와 타자가 요구하는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이때 새롭게 발견하는 나의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나를 읽는 인문학 수업》은 다양성이 심화된 시대에 새롭게 나를 정의하고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책이다. 나에게 접근하고 이를 탐구하는 데 익숙한 심리학뿐 아니라 기존에는 잘 다루지지 않았던 교육학, 문예학, 지리학, 언어학 등 나를 읽는 새로운 시각을 전한다. 어떻게 나를 발견하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지, 인생의 변곡점마다 드러나는 새로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기후위기 시대에는 어떠한 내가 필요한지, 한국어란 틀 안의 내 모습은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나에게서 도망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등 자기 자신을 ‘하나의 나’가 아니라 ‘다양한 나’로 이루어진 존재로 바라보고,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나의 모습과 기존의 나를 융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졸데 카림은 “인간은 곁에 누가 있느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끝없이 자신을 재구축한다. 이제 우리는 매일 다르게 살 수 있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살면서 우리는 낯선 나의 모습을 계속 만나게 된다. 이때 새로운 나를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르면 다를수록 아름답다.

변화를 즐기는 ‘나’가 필요한 시대 다양성 자체가 나의 고유한 특성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 시도는 끝이 없었지만,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도대체 왜 나를 알 수 없는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가령 40대 남자는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직장에서는 팀장이며 동호회에서는 부회장일 수 있다. 이 남자는 여러 개의 정체성 중에서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체성을 택해 대화하고 행동한다. 다만 그가 남편이기 위해서는 아내가 있어야 하고, 팀장이기 위해서는 팀원이 있어야 하며 부회장이기 위해서는 동호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또한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을 하는 경우 남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질 것이고,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 팀장이라는 정체성은 사장이라는 정체성으로 대체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나라고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15세에는 학문에 뜻을 두고, 30세에는 뜻을 세우고, 40세에는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50세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모든 인생에 저마다의 분기점이 있고, 그 분기점마다 새로운 나를 만난다. 인생 곡선에서 상승의 변곡점이 될 수도, 하강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다. 문득 발견한 낯선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수 있다.

결국 답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평생 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늘 인식하며 살지는 않는다.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를 생각할 뿐,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는 한 익숙한 나 자신에게 굳이 ‘넌 누구니?’라고 묻지 않는다. 하지만 삶이란 근본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항상성은 깨지기 마련이다. 바로 이때 그동안 나를 돌아보지 않은 결과가 돌아온다.

이 친구가 상담실에 오게 된 것은 뜬금없이 나타난 증상 때문이었다. 어느 날부터 쇠로 된 물건은 그 어떤 것도 손으로 잡을 수 없었다. 젓가락뿐 아니라 전철 문을 만질 수도 없었다. (……) 쇠로 된 물건을 잡으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은 살인적 충동성을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상태인 것 같았다. 온순하고 착실한 모범생 페르소나에 익숙했던 이 친구는, 자신을 제치고 합격한 동급생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질투하는 자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2-1.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나를 비틀거리게 만든다**

대입 실패를 경험했던 20대의 슬픈 그녀는 마치 어제 그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이젠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그녀에게 뜻밖의 얼굴을 들이민다. 아마도 20대 초반 대입에 실패했을 당시의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고 슬픈지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 이러한 콤플렉스는 매우 끈질기기 때문에 멈춰서 ‘나 왜 이러지?’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계속 대물림된다. 실제로 자신의 학력 콤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한 엄마가 자기와 아이를 멈출 줄 모르는 고속열차처럼 몰아붙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2-2.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갈등 전반의 기저에도 ‘나’가 있다. ‘나에 관한 건강한 담론’을 미룬 결과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평가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차별이다. **_5-1.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가 차별을 낳는다**

차별을 하는 강자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알아서 인정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자들은 강자로부터 무시, 차별, 배제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고 그때마다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인, 한국에 이민 온 외국인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은 정체성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_5-1.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가 차별을 낳는다**

《나를 읽는 인문학 수업》은 60대 초반이라는, 인생으로 치면 철부 능선에 도달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집필했다. 인생이 흔들린다면 나를 돌아보라.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나’에 있다.

“인생의 중간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성격유형검사 MBTI는 ‘수호자’ ‘사업가’ ‘변론가’ ‘옹호자’ 등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눈다. 그러나 모든 옹호자 내면에는 수호자가 있을 수도, 변론가가 있을 수도 있다. 다양성 자체가 나의 고유한 특성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다양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지리학자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여행을 통해서라면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또한 심리학자는 주요 생애사건을 맞닥뜨릴 때마다 새로운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문예학자는 자연에서, 언어학자는 일본인과의 비교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살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새로운 나를 받아들일 줄 안다면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얼굴을 내미는 낯선 나의 모습을 수용할 방법이 《나를 읽는 인문학 수업》에 들어 있다. 이 책을 통해 다르면 다를수록 아름다운 나로 거듭나보자.

◆ 지은이 소개 ◆

이영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및 다문화 상호문화협동과정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 지리인류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소와 사람 그리고 문화의 관계를 밝히는 인문지리학을 연구한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여행과 국제 이주의 특성을 연구하면서 인문지리학의 관점으로 여행의 의미와 방법을 전파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지리학자의 인문여행》 등을 집필했으며, 《문화 장소·흔적.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등을 번역했다.

유성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및 다문화 상호문화협동과정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교육 및 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심리학자로는 최초로 미국심리학회 펠로우로 선정됐다. 인간의 마음, 고통 그리고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담심리학을 가르치며 연구한다. 상담심리전문가로 개인 및 부부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상담 및 심리치료의 핵심원리》를 집필하고 《상담의 디딤돌》 《감정 공포 치료》 《성격장애의 정신역동치료》 등을 번역했다.

송대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및 다문화 상호문화협동과정 교수. 프랑스 그르노블대학교 상상력연구학과에서 〈질베르 뒤랑의 문예비평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교섭, 생태위기 시대의 새로운 문화 창출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상상력의 위대한 모험가들》 《이미지와 상징》 《볼테르와 중국》 등을 출간했다.

송영빈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부 및 동아시아학, 다문화 상호문화 협동과정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석사, 나고야대학교 문학연구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력과 권위의 언어가 아닌 권리로써의 언어 확립을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 전문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이론적 연구와 용어집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말 의학 전문용어 만들기》 《언어와 권력》 등을 집필했으며, 《한자의 미래》 등을 번역했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이자 이화다문화연구소장이다.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에서 학사 학위를, 프랑스 루앙대학교에서 불어교육학 석사, 사회언어학 석사, 불어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유럽의 상호문화교육을 연구하고 이 교육을 한국 사회갈등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차별의 언어》 《상호문화교육》 등을 집필하고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상호문화사회》 등을 번역했다.

◆ 책 속에서 ◆

인간의 모든 일은 항상 ‘장소’를 ‘가져야’만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장소는 우리가 놓인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으로 구성된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실체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지만 물에서 벗어나 물으로 나오면 이내 죽어버리는 것처럼, 인간에게 장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대상이다. (중략) 장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내가 학생 또는 교사라면 분명 학교와 교실이라는 장소에서 주로 생활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학교와 교실이라는 장소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인들에게는 사하라 사막이, 보르네오섬의 이반족에게는 열대우림이, 뉴욕시 증권가의 금융인에게는 맨해튼 도시환경이 그들을 그들이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소다. _1-1. 인간은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지리학자인 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서들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간과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한다. 여행지에서 낯선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이곳과 그곳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지리’의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하지만 ‘어디에’ ‘어디로’의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의문이 든다. 낯선 장소와 제대로 조우하지 않는다면 과연 자아를, 내 삶의 위치를 제대로 성찰할 수 있을까? 만약 낯선 장소를 경험하면서 그곳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 나의 장소와 그곳의 다름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나 자신으로 향하는 성찰의 무게가 달라지지 않을까? _1-2. 일상의 경계 너머 ‘새로운 나’가 기다린다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세세하게 분석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개구리의 내부기관을 알아보려고 예리한 칼날로 철저히 해부하듯이 말이다. (중략)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자기 자신을 해부한다. 자신이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그렇게 행동한 적이 이전에 또 있었는지 철저한 자기분석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런데 개구리가 사지를 벌리고 해부를 당하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이렇게 해부를 당하면 파괴 또는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고 만다. **2. 인생이 힘들다면 '나'부터 공감하라**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일차적으로 외적인 사건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다시 통제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항상성이 깨진 상태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외적인 문제부터 봉합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다.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불안과 우울의 증상을 처리하기 위해 각종 대처법을 절실히 찾는 사람이 그 예다. 겉으로 드러난 심리적 증상만 처리하려고 하면 당장 문제는 겨우 봉합된 듯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 큰 인생의 파도가 닥칠 때 또다시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난파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인생의 파도를 만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 **2-1.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나를 비틀거리게 만든다**

명절만 되면 20~30대는 “언제 결혼하나?” “언제 취업하나?” “언제 출산하나?” 등 사적인 질문 공세를 무차별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발달과업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요할 때, 그 사건의 개인적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사회에게 또는 타인에게 담보 잡히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사회적 기준에 맞게 발달과업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의미를 개인적 가치와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기와 대면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진다. **2-2.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로는 더 나아가 대부분의 사람이 정신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봤다. 나 자신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평판의 노예로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정신적 노예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부리는 감독관이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 묶은 사슬을 풀지 않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사소한 일들로 흐지부지 헛되어 쓰이고 있다.” **3-1. 당신은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네스에게 자기실현은 자기 존재의 잠재성을 완성시키는 것으로서, 자기실현을 심화하면 자기를 더 넓고 깊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 ‘나’는 타인을 포함하는 동일화를 통해 좁은 자기를 넘어 더 큰 자기실현에 도달하며, 결국 모든 인류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타인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 타인의 자기실현이 방해받으면 우리 자신의 자기실현도 방해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타인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 자연과의 관계가 곧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약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내 수업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학생 모두 서로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 생각지도 못했던 점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 특히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수록 학생 모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음을 실감한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낯설어진다. ‘이렇게 내가 한국사회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토록 일본 사회제도에 순응하는 사람이었는가?’ **4. 밖에서 바라보아야 '나'가 객관적으로 보인다**

맛집 소개 방송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일본의 방송에서는 손님의 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국의 방송에는 손님들의 반응이 반드시 등장한다. 인터넷 뉴스 기사를 평가하는 방법을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 ‘좋아요’ ‘기대해요’ ‘놀랐어요’ ‘슬퍼요’ 등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으로 기사를 평가한다면, 일본은 ‘배움이 있다’ ‘알기 쉽다’ ‘새로운 관점’ 등 정보의 가치 측면에서 평가한다. 이것은 한국인이 감정을 자주 표현한다는 특성을 넘어 감정적인 영역까지 공동체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감정 공동체’인 것이다. **4-1. 당신이 생각하는 '나'와 '한국인으로서의 나'는 같을까?**

미국 사상가 에드워드 하스켈은 1941년에 이런 사람을 '다문화적 인간'이라고 했다. '다문화적 인간'이라는 말은 특정 국가와 언어, 종교를 초월해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소수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을 소수라고 생각할 수 없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문화적 인간'이어야 한다. **_5-1.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는 차별을 낳는다**

이렇게 정의된 정체성은 관계성, 복수성, 가변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관계성은 누군가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모라는 정체성은 자식이 있어야 생기고 남편이라는 정체성은 아내가 있어야 생긴다. 남자라는 정체성도 여자가 있어야 생기는 것이다. 복수성은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이다. 가령 50대 남자는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직장에서는 교수이며 동호회에서는 회장일 수 있다. 이 남자는 여러 개의 정체성 중에서 각각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체성을 선택해 대화하고 행동한다. 가변성이란 정체성이 정체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다. 학생이라는 정체성은 졸업과 동시에 없어지고 취직하면 직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다. **_5-1.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는 차별을 낳는다**

◆ 차례 ◆

머리말

나는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발견의 대상이다

인생의 분기점마다 새로운 나를 만난다 | 인간은 '하나의 나'가 아니라 '다양한 나'로 이루어진 존재

I. 낯선 곳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나는 발견된다

'여행'이 필요한 지리학적 이유_이영민

인간은 장소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나를 알기 위한 지리학적 단서 | 장소감이란 무엇인가 | 낯선 만남이 이어질수록 낯선 나를 만난다

일상의 경계 너머 '새로운 나'가 기다린다

'여행하는 자'와 '여행되는 자' | 경계 넘기의 즐거움 | 가까운 곳에서도 낯설게

나와 나 그리고 나와 너 사이, 발견의 시선

다름에는 끝이 없다 | 잘못된 시선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 생활자와 여행자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 다르면 다를수록 나를 발견한다

II. 인생이 힘들다면 '나부터 공감하라

인생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자기수용'_유성경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나를 비틀거리게 만든다

내면으로의 초대장은 위기와 함께 찾아온다 | 나를 옹아매는 긍정적 착각 | 균형과 불균형 그 사이에서 주체성을 잃지 말 것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변곡점에서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 | 인생의 필수적 통과 의례는 없다 | 가여운 오이디푸스들의 힘겨운 독립

유연함을 연습할수록 '나는 다양해진다

‘나를 마주할 용기 갖기 |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 감정은 훌륭한 데이터다 | 자기수용의 최고 단계, 유머를 발휘하라 |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필요하다

III. 자연을 위하여 나서야 ‘나가 온전해졌다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생태적 자기_송태현

당신은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모든 것은 자연 안에 있다 | 망명자의 삶과 자연의 위로 | 근대적 자아의 탄생 | 소로, 월든으로 떠나다 | 자연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배웠다

자연과의 관계가 곧 자기 자신과의 관계

생태적 삶을 실천한 최연소 철학과 교수 | ‘인간을 위한 환경에서 ‘모두를 위한 환경으로 | 좁은 자기를 벗어나 보편적 자기를 꿈꾸다

자연에서 얻어낸 삶의 지혜

생태적 지혜, 행동으로 옮기다 | 보편화가 가능한 생활방식 | 모두를 위한 삶이 곧 자기를 위한 삶

IV 밖에서 바라보아야 ‘나가 객관적으로 보인다

_가깝고도 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엿보는 ‘한국인으로서의 나 by 송영빈

당신이 생각하는 ‘나와 ‘한국인으로서의 나는 같을까?

나라마다 다른 심리적 경계선 | 심리적 경계선이 다른 역사적 이유 | 한국은 틀림없는 중앙 중심의 나라

중앙 중심의 ‘나를 넘어 유연한 ‘나로

일본의 주민등록증, 마이넘버카드 | ‘나의 크기에 따라 공동체가 다르게 움직인다 | 일본이 역사를 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 | 변화를 즐기는 ‘나가 필요한 시대

V. ‘나란 누구인가에 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_다른 나를 바라보는 편견을 가로지르다, ‘상호주관성 by 장한업

정체성에 대한 몰이해는 차별을 낳는다

다문화사회 한국, 단문화적인 한국인 | 단문화적 세대에게 날아들 미래의 청구서 | 변하지 않는 정체성은 없다 | 나는 ‘다양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기획된 공동체 안에 살고 있다

민족중심주의, 다른 문화를 주변부로 전락시키다 | 상상의 공동체 vs 공동체의 상상 | 단일민족이란 허상에 불과하다

지금, 여기 있어야 할 나는 누구인가?

사회적 전염병을 치료하라 | 타인을 존중하기 위한 ‘나의 조건 | 변화하는 사회, 변화해야 할 나